



실크로드 심장에 불고 있는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는 한국의 또 다른 한국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일이 있을 것이다. 과거 어딘가에서 본 듯한 경치 또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지금 본 그 장면이 과거 어디에서 보았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한다. ‘어디서 보았더라? 꿈에서 봤나? TV에서 본 장면인가?’ 등 가우뚱하면서 말이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문화를 닮은 어디선가 본 듯한 한국을 만날 수 있다.

우즈벡은 우리에게 무척 낯선 나라이다. 최근에서야 외국 취업자와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진 나라지만, 여전히 한국에게는 낯선 나라이다. 최근에는 <김태희가 소 몰고 한가인이 밭 가는 나라>라는 TV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우크라이나’와 ‘우즈벡’을 혼동하며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만나곤



팽주만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원장

한다.

그러나 우즈베크는 대한민국을 낯선 나라가 아닌 '성실한 민족의 의리가 있는 따뜻한 나라', '본받고 싶은 나라'로 모든 국민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조금 과장된 평가를 하고 싶다. 이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만주별판에서 이곳 우즈베크로 정착한 고려인의 성실함이 한몫했을 것이다. 각종 역사서에는 당시 강제 이주 과정 중에서 9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사망했으리라 추정하면서 17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낯선 땅 중앙아시아에 분산되었다고 한다.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는 끊임없는 기차길에 의지하며 내린 곳이 고려인의 제2의 조국이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우즈베크에는 약 19만 명의 고려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크에 정착한 이들 고려인은 그들이 가진 성실함과 도전 정신으로 나라의 농업혁명을 일으켰고,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실한 민족으로 자리매김 했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초석을 다졌다.

다음으로는 어려움에 있는 우즈베크에 손을 내밀어 준 우리 기업의 영향이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나라들은 각자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농업사회 중심이었던 우즈베크에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대우자동차 현지 공장이 설치된다. 대우자동차 설립으로 알려지게 된 'KOREYA'라는 이름은 우즈베크이 다시 일어설 희망과 미래를 주게 되었다. 대우자동차 현지 공장 준공식 날이 현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정도였다는 것은 당시 그 의미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즈베크에 느끼는 한국은 희망의 국가이고 국민에게 꿈을 준 따뜻한 국가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형성된 한-우 경제적 교류의 확대, 한류 문화의 폭발적 영향 등은 우즈베크에서 또 다른 한국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함께한 인연, 함께 할 동행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나라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돕게 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은, 우즈베크이 닳고 싶은 미래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하기에 한국을 '알고 배우기' 위한 현지의 다양한 노력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우즈벡 국민이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것은 ‘한국어 배우기’이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개인적 이유를 넘어 사회적으로 희망을 주는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현지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한국어를 보급하는 중심에는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5월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우즈벡에서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우즈벡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991년 한국과 우즈벡의 문화교류 협정 체결에 따라 설립이 확정되었고, 이듬해인 1992년 5월 27일에 정식개원했다. 사람의 나이도 30세가 되면 기초가 확고해져서 독립해야 하는 시기(而立)라고 하는데, 타슈켄트한국교육원도 이립(而立)의 시기를 넘어 앞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성인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 지금까지의 달려온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보냈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 중심 기관으로 노력을 충실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룬 성과들이 차곡 차곡 쌓이면서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었던 대한민국 교육부와 우즈벡 정부, 교실에서 한국어를 알려주기 위해 배움·연구를 실천해주신 현지 대학 등 교육기관과 소속 한국어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우즈벡의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위상이 가능했다. 이들과 함께한 노력이 낳은 땅 우즈벡에서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한국어 보급의 길을 순탄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라고 본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한국어 보급의 양적 확산을 넘어 양질의 한국어 교육 보급에 앞장설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발걸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 같이 한국교육원 혼자 걷는 것이 아닌 여럿이 함께 걸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맺어온 우즈벡의 따뜻한 한국어 인연이 앞으로의 한국어 보급을 위한 든든한 동행이 될 것을 우리(한국-우즈벡)는 서로 다짐했고 지금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앞날을 약속하는 선도학교 수여식(30주년 행사)



단위 학교의 한국어 교육 홍보 부스(30주년 행사)

“살아가는 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믿음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만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실천하기 위해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지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어 보급이라는 성과와 목적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실천하기보다는 만남을 통해 양국의 교육이 서로를 더 알고 배우는 기회의 폭을 넓힘으로써 한국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퍼지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지향하는 진정한 우정과 협력 그리고 동반 성장을 가져오는 국제사회에 훌륭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하나, 만남이 가져온 덤

양국 학생 및 교사 등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와 동반 성장의 기회를 확산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였다. 자매결연 사업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육원은 자매결연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내실 있는 관계의 형성·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 간 가교 사업을 진행하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한국의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의지가 있는 기관 모집 공고를 했으며, 동시에 우즈벡 학교에도 학교의 의지를 묻는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각 기관은 한국교육원이 학교 간 자매결연 가교를 진행하는 것을 낯설어하면서도 교류를 위한 기대를 품고 많은 기관이 지원하였다. 2022년도에는 양국에 각 25개 학교가 연결되었다. 기관 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은 다양했다. 학생 동아리식 운영, 특정 주제에 관한 탐구 운영,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콘퍼런스 운영, 현지를 방문

하여 학교 수업 관찰 및 협력 다짐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교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소통 여건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교류와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 자체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인간 존중, 배려, 평화 등 세계 시민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즈베크 학교에는 만남과 소통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여건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으며, 한국 학교에는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통역과 서로 다른 문화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지원했다. 더불어 학교 간 교류 이외에 한국의 시·도교육청도 학교 간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내실 있는 자매결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 간 만남과 소통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과도 만남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참여할 예정이다.

작년의 경험을 살려 올해는 다양한 형태의 자매결연 가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년도 연결된 자매결연 학교 이외 23개의 학교가 추가로 자매결연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에서 끝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교환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 본연의 가치에 접근하면서 자매결연 가교 사업이 한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로 사람 간 만남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 학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매결연 가교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원도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 간 소중한 만남이 지속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강화될수록 한국어 교육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 만남이 주는 상상 이상의 변화

우리 한국교육원은 주재국의 교육 성장을 도모하고, 교실 수업 모델 마련에 한국어 교육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크는 지금의 시기를 경제성장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제도 도입, 자유시장경제 확대,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제 부문에서는 그 활동이 남다르다. 해외 기업 투자 유도, 무상 원조 유치, 국제 대회 개최 등 경제 교역이 강화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은 다른 정책 결정보다 우선순위가 밀려보인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주재국 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원은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에게 인건비 성격의 수당 지급, 한국어 교실 환경 개선, 한국어 교과서 개발·보급,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예산이 수반된 물적 지원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어 양적 확산에 치중하고 있으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이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 형태와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들이 주재국의 교실 수업 분위기를 혁신하여 현지 교육 개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한국어 교실 수업의 질적 제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는 한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이론적 강의와 제한된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의 대량 교육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역량 제고 연수 방식 적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대한민국의 현직 교원을 초청해서 우즈베크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신선한 도전이 대표적이다. 9명으로 구성된 한국 수업 지원단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없었다. 9명의 선생님도 '우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공유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같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 무엇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업에 참여한 듯 보였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실 수업의 소중한 경험을 우즈베크 선생님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경험과 생각의 공유가 현지 한국어 선생님들의 수업을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천한 이러한 연수 방향은 우즈베크 한국어 수업 수준을 높이는 데 적중했다. 우즈베크 한국어 교사들은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고민 과정을 배웠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몸으로 익혔으며, 교사의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세밀한 접근은 주재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 중심에 한국어 교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기대하기에도 충분했다.

이러한 살아 숨 쉬는 현장 중심 수업의 공유 활동은 당시의 연수 기간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분기별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한국어를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과 성장을 양국 교사가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연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잠깐 만나는 사업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된 만남 유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연수를 하반기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만남이 있는 연수는 분명히 우즈벡 교육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저변에는 한국어 교육이 우즈벡 교육에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 수업제고를 위한 한국 수업 지원단 개강식



한국 교사와 우즈벡 교사의 만남(수업 지원단 연수)

셋, 한국어 교육은 언어교육을 넘어선 꿈을 주는 교육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국어를 배워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우즈벡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한국형 인재가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자가 한국어 채택학교 교장단 워크숍에서 했던 말이다. 한국어 교육이 언어를 배우는 과목이라는 기능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벡 교육 성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개인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과목으로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말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학교 관리자의 통합적 접근과 인식은 교실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과목을 편성 운영해야 하는 학교 차원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관리자와 한국교육원이 서로 협력한다면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한국교육원이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해당 학교의 한국어 교육 질 제고와 물적·인적 지원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질 것이다. 성장한 인재는 한국 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자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크의 교육 교류가 지향하는 바 아닐까 싶다.


현재는 68개의 한국어 채택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제2외국어 또는 방과 후 과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우즈베크 정부와 제도적 협력을 통해 21개 학교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2025년까지 165개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의 현장 보급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지만,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언어교육을 넘어선 한국형 우수 교육이 제대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을 넘어서 우수한 한국교육의 실천적 경험 공유가 개인과 사회에 꿈과 희망이 되는 교육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어, 新실크로드의 역사를 쓰며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 문화의 통로였고, 그 길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의 많은 문물의 교역이 이어지며 서로의 문화 발전을 촉진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문명교류의 상징적 의미로 '실크로드'라는 명칭이 불린다.

최근 한류 문화를 세계인이 반기며 즐기는 모습을 방송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인기로 시작한 중앙아시아의 한류는 드라마, 음악뿐 아니라 K-푸드, K-의료, K-뷰티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은 현지인이 한국어를 배울 동기와 용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한국이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즐기며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만나고 공유하는 시간 속에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우즈베크에서 새로운 한국어 실크로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한국어 교육연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 세계 한국교육원 가운데 유일한 낮선 도전일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 소외되는 지방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 도전이 알찬 성과를 이뤄 다른 한국교육원의 롤모델이 되길 바라는 욕심도 가져본다. 나아가 일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유학지원센터를 내부 조직으로 신설하여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안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그 외에 우리 한국교육원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 위에서 현지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알려주는 교육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어 보급을 넘어선 한국어로 서로가 연결되는 놀라운 한국어 실크로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필자 소개

중등 사회과 교사로 교직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인연을 갖고 교육부 교육전문직에 몸을 담았다. 대입제도과, 학교안전총괄과, 교과서기획과, 학교생활문화과 등 초중등분야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업무를 수행했다. 지금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의 24명의 직원들과 함께 한국의 높은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